

지역 소식통



부안보건소-군 의사회  
청렴협력체 캠페인 실시

부안군 보건소는 지난 14일 해성병원(원장 주세혁)과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청렴한 부안을 만들기 위한 청렴협력체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성병원 주세혁 병원장은 지역사회의 청렴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협력체 (부안군 보건소-부안군 의사회) 릴레이 캠페인'의 첫 주자로 참여했다. 이어 반부패·청렴 활동을 위한 소통·협업 공익 우선 실천, 공정하고 투명한 일처리, 반부패·청렴업무 발전에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청렴한 부안군 5無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현시켜나갈 방안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시 한번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민·관 함께  
도시 경관조성 나서

전북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 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이해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경관조성에 나섰다. 최근 고창군에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군민들의 마음이 모인 기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고창군청에서 이뤄진 기탁식에서는 △고창잔디영농조합법인 김종익 대표가 꽃잔디 10,000본을 △수립원 김영건 대표가 반송 1점을 △선운산농원 조현환 대표가 소나무 1점을 △송암농장 고광전 대표가 소나무 1점 등을 기탁했다. 특히, 이번에 기증받은 소나무는 고창군 중심 도로구간인 터미널 회전교차로와 하나마트 회전교차로에 식재되어 고창군의 상징 수목답게 고창군의 이미지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고창=김영식 기자

# 생산성본부와 협업... 경쟁력 강화

## 고창군, 지역 경쟁력 강화·생산성 향상 위해 협약

전북 고창군과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15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삼덕식 고창군수,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청에서 진행됐다. 고창군과 한국생산성본부는 이번 협

약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창의적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한 교육·컨설팅·연구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서비스 선진화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위한 각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 교육,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조직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여 공공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정책을 제안하여 공공 부문 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안완기 회장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내 산업교육 기관으로 ESG 디지털 전환 등의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 왔다"며 "고창군의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덕식 고창군수는 "한국생산성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 농산물 맛조수다게" ... 제주도민 입맛 저격

## 단풍미인 농특산물, 13~15일 제주 서귀포농협 하나로 마트서 판촉행사

정읍시의 농특산물인 단풍미인 수박과 토마토, 방울토마토 등이 제주도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제주도민들도 큰 호응을 보였다. 오전에 단풍미인 농산물을 사간 손님의 맛을 보고 오후에 재구매를 하는가 하면, 지난해 판촉행사에 이어 올해도 단풍미인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마트를 찾기도 했다. 그 결과 준비한 방울토마토 300박스(2kg)와 토마토 200박스(4kg), 수박 1000통(5~9kg) 등이 모두 팔려 2540만 원의 수익을 냈다. 또 이학수 시장은 정기철 서귀포농

협동조합장과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판촉행사를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이학수 시장은 "제주도에서는 정읍 농산물의 거래량이 많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판촉행사를 통해 정읍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부터 제주도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2500여만 원, 2018년 3700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제3산업단지에 위치한 SK넥셀리스(대표 이재홍)가 전북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15일 SK넥셀리스에 전북도지사 표창장을 전달했다. 전북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1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지방세 납부 건수가 매년 3건 이상이며 연평균납부액이 법인인 5000만 원, 개인인 500만 원 이상이어야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 중 납세 규모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큰 순서로 최종 선정된다. SK넥셀리스는 정읍지역 내 법인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납부했고 단 한번도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없어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납세자이다. 또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청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역 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제3산업단지에 위치한 SK넥셀리스(대표 이재홍)가 전북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 "지역발전 위한 소중한 재원 될 것"

## SK넥셀리스, 전북 모범납세자 선정... 정읍시, 도지사표창장 전달

정읍 제3산업단지에 위치한 SK넥셀리스(대표 이재홍)가 전북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15일 SK넥셀리스에 전북도지사 표창장을 전달했다. 전북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1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지방세 납부 건수가 매년 3건 이상이며 연평균납부액이 법인인 5000만 원, 개인인 500만 원 이상이어야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 중 납세 규모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큰 순서로 최종 선정된다. SK넥셀리스는 정읍지역 내 법인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납부했고 단 한번도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없어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납세자이다. 또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청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역 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전북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SK넥셀리스는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행정지원과 1년간 농협, 전북은행의 예금 금리 우대, 대출금리 인하, 환율적용 유대 및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혜택을 받게 된다. 또 전북도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전북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전라북도립미술관 등) 이용료 감면·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하다"며 "정실히 납부해 준 세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북면 제3산업단지에 위치한 SK넥셀리스는, 전기차와 핸드폰 등 IT기기 배터리에 필요한 동박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신청자 모집

전북 고창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7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정부예산으로 이차 보전하는 사업으로,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별 3억원 한도, 주택 구입 자금은 7,500만원 한도이다. 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조건이며,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하다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만 5년 이내인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농업인)으로 귀농을 위한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고창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귀농 초기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은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신규로 정착자금 대출실행(고창금리)을 한 건에 대해 은행에 납부한 자부담 이자 중 1%를 3년간 균비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 구절초 꽃축제 준비 착수... 23일까지 판매장 운영자 모집

대한민국 대표 가을축제로 자리잡은 '정읍 구절초 꽃축제'가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돌입했다. 정읍시는 제16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와 함께한 판매장 운영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16회 구절초 꽃축제는 오는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23일까지 판매장을 운영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식당 13개소 △구절초상품판매장 8개소 △농특산물판매장 30개소 △푸드트럭 6개소 등이다. 신청은 직접 생산·가공하는 구절초 제품이나 정읍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판매를 희망하는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개인이 식당 운영을 원할 경우 마을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운영해야 한다. 신청 심사는 7월 5일부터 이틀간 산내면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음식(제품)품평회, 현장 면접

을 통해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 시는 참가자 선정 이후 축제 관람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참가자와 가격 결정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절초 꽃축제를 찾는 관람객에게 깊은 가을 풍경을 좋은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